

■ 리비아 시민혁명 6개월 대서사극

‘재스민 시위’ 내전·국제전 비화

리비아 반군이 23일 무아마르 카다피 지도자 진영의 핵심 거점인 바브 알-아지자야 요새를 장악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리비아 시민혁명은 거리시위에서 출발, 내전, 국제전으로 비화된 한편의 대서사극이었다. 올초부터 전 아랍권을 휩쓸고민 민주화 바람은 리비아를 피해가지 않았다.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의 독재정권이 무너진 직후인 2월 15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발생한 시위가 출발점이 됐다. 1996년 아부 살림 교도소에서 발생한 정부군의 학살 사건에 힘입어 재소자들의 유족이 자신들의 변호사인 페티 타르벨이 유언비어 유포협의로 체포되자 경찰서로 몰려가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리비아 경찰은 타르벨 변호사를 석방했지만 주변 두 나라에서 시민들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접한 리비아인들은 곧바로 반 카다피 투쟁 양상으로 돌변했다. 196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의회 제도와 헌법을 폐기한 채 42년째 리비아를 철권통치해온 카다피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으로 변화한 것이다.

카다피 정권은 이제 해온 방식대로 시위를 유혈진압했다. 경찰과 친위 민병대를 앞세워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 사망자는 수십 명 단위에서 수백 명으로 급증해 나갔다.

분노한 시민들은 결국총을 들었다. 사태의 성격이 단순한 시위에서 내전으로 변모한 분기점이었다.

2월 하순 카다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부 벵가지가 ‘해방구’로 만든 시민들은 트리폴리를 카다피

2월 제2도시 벵가지에서 점화

3월 나토 연합군 리비아 공습

8월 카다피 요새 반군에 함락

정권에 맞선 무력 투쟁을 전개했다.

반 카다피 세력은 3월 5일 자신의 대표기구인 과도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조직적인 카다피 정권 전복 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리비아 국민의 합법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카다피 정권의 심장부인 트리폴리를 향해 진격해 나갔다.

이때부터 리비아 상황을 ‘시위’가 아닌 ‘전투’로, 참가자를 ‘시위대’가 아닌 ‘반군’으로 부르는 이들이 대세

를 이뤘다.

반군의 희생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벵가지에서 최후의 대규모 학살이 빚어질 위험이 높아지자 국제사회 의 움직임도 급속히 빨라졌다.

카다피 군대가 반군 거점인 벵가지의 터를 깨끗이 진격한 다음날인 3월 17일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3월 19일 프랑스와 영국이 주축이 되고, 미국이 가세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연합군이 ‘오디세이의 새벽’이라는 작전명 아래 리비아 공습에 나서면서 사태는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또 한번 변화했다.

이후 반군-나토군과 카다피군 간의 전투는 한동안 소모전 형태로 전개되며 6월 말 반군 쪽으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반군이 트리폴리를 향해 진격해 오자 카다피 친위부대는 지난 15일 스커드 미사일까지 동원하며 저항했지만 전세는 역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반군은 나토군의 공습 지원 속에 20일부터 트리폴리 함락을 위한 최후의 작전(작전명 인어의 새벽)을 전개했다. 결국 카다피 요새인 알-아지자야가 반군에 함락되면서 전쟁은 시민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리비아인들이 24일(현지시각)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 보루었던 바브 알-아지자야 요새를 장악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요새 내 깃대에는 반군이 내건 승리의 깃발이 새로 게양됐다.

“천리안 성공 프랑스社 위기관리체계 배우자”

항우연, 나로호 3차 발사 워크숍

나로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천리안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 사의 위기관리체계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24일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을 위한 개발검증체계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발사체 및 인공위성 관련 부서 40여명이 참석해 우주개발체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발사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국내 연구개발에 의해 제작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발사에 성공한 아

진화하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 밖에도 나로호 개발에 적용한 개발 검증체계 가운데 품질보증, 행성관리, 인터페이스 검증, 상단부 시험검증체계에 대한 상세 발표 시간을 갖고, 비행모델 품조립 및 점검방법 등을 논의했다.

김승조 항우연 원장은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원인 원因为 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워크숍이 3차 발사 성공을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가 됐다”며 “선진국의 개발체계와 우리의 개발경험을 통해 장단점을 진단하고, 선진 우주기술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연합뉴스

워싱턴 5.9 지진… 美 심장부 ‘혼란’

백악관·국방부·의회 등 직원 긴급 대피

9·11 앞두고 긴장… 원전 가동 자동 중단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동부지역 일대에서 23일 오후 1시 51분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 자질조사국(USGS)은 이날 지진의 진앙이 워싱턴 D.C.에서 남서쪽으로 약 92마일(148km) 떨어진 베지니아주 미네랄 지역의 지하 0.5마일(0.8km) 지점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당초 지진의 규모가 5.8이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6.0으로 정

격이 발생하게 아니나 공포감에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이날 지진은 진앙인 베지니아주는 물론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 뉴욕주, 캐나다 토론토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됐으며, 일부 건물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지니아주에 위치한 ‘노스 앤더’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 직후 안전시스템이 고장난 건물이 흔들리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백악관과 국방부, 의회 등 주요 관공서 건물에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한때 큰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다음달 9·11 테러 10주년을 앞두고 폭탄 테러 공

1307명은 지난 2월 현재 국가로부터 생계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수급자였다.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카지노를 빙번하게 출입하는 생계곤란자나 도박중독자들을 위한 도박중독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강원랜드에 통보했다.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협력업체 임직원 35명도 5일 이상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하는 한편 카지노 출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정부는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시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관보 계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

6자회담 재개·경협 집중 논의

북·러 정상회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위원장은 24일 오후 20시 30분께 회담장인 울란우데 동남쪽 외곽 ‘소스노비 보르(소나무 숲)’의 제11공수타격여단 영내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소스노비 보르에 먼저 도착해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기도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라면서 “이웃, 동반자 문제를 얘기할 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북·러 정상은 이날 6자회담 재개와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언론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북·러 교역 문제, 남북러 3각 경제 협력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 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 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 원~

상해,장가계,주자각 5일

919,000 원~

광양훼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일,수)]

8/28,31 9/4,7

99,000 원

9/11 추석기간

199,000 원

9/14,18,21

129,000 원

9/25,28

149,000 원

10/2~12/21

179,000 원

인천공항 출발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 원~

서유럽4국(프,스,이,영) 8일

1,990,000 원~

서유럽5국(웅프라우) 10일

2,090,000 원~

서유럽6국(웅프라우) 12일

2,290,000 원~

서,동유럽완전일주 15/16일

2,790,000 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 원~

NO-TIP 동유럽 6국 9일

1,890,000 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 원~

미서부 3대개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 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 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 원~

광주지점 OPEN 기념!

가격은 특가! 품질은 품격! 대!방!출!

★꿈의 휴양지★ 하와이 5일 ONLY